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7일 화요일 음 2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5~8℃, 낮 최고 기온은 15~18℃의 분포를 보이겠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0%
20%	성산	0%
20%	고산	0%
2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063-2828131〉

내일 맑음 9/18℃

모레 맑음 11/16℃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보통

월드뉴스

운구차 돼지고기 배송... 우한 시민들 격양

중 ‘공동구매와 관계 없어’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운구차로 돼지고기 등을 운반하는 모습이 목격돼 주민들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쓰레기 차량이 한 주택단지에 냉동육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흥역을 치른 상황에서 운구차마저 등장하자 긴장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에 나섰다.

우한시 황피구 지역에는 지난 14일 주민들이 공동구매한 돼지고기와 양배추 등 생활물자를 운구차가 운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때맞춰 운구차량을 이용한 식료품 운반을 방치한 당국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가 자유시보와 SET TV 등 대만 언론이 16일 전했다.

서둘러 조사에 나선 당국은 장례식장의 직원 뤼모씨가 법규를 위반해



쓰레기차에서 쏟아지는 고기.

개인적으로 돼지고기와 양배추 등 생활물자를 운구차로 자신의 친척인 천모 씨에게 배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국은 당시 운구차로 운반된 생활물자는 뤼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주민이 공동구매한 생활물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언론은 뤼씨가 배달한 물건을 생활물자라고만 밝혔으나 대만 SET TV등은 돼지고기와 채소류라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식료품 배달에 운구차가 사용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국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K형,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뜨겁게 내리쬘던 여름 끝자락이었습니다. 그 때를 떠올리기도 싫지만 밀려들어오는 관광객과 제주이주열풍으로 농경지까지 건물이 들어서는 막장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였죠. 지금도 꽃자왈이 파헤쳐지고, 넘쳐나는 하수와 쓰레기 그리고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 언제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이 또한 지나가겠조

것입니다. 행복이 돈이라는 등식으로 변한 사회에서 지난 세월보다 나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풀과 나무는 물론이고 이들에 의존하는 동물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어머니처럼 자신의 몸을 모두 내맡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온갖 먹을 것을 내줬던 대지도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시가 떠오릅니다.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하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빈약한 삶을 이어 주었다.’ (T. S 엘리엇 황무지 중에서)

그 시절 시인이 길고 난해한 단어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뜻을 제대로 모르겠지만 하얀 눈이 없던 제주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땅은 눈에 덮인 긴 겨울 침묵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으나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식

물과 동물, 인간에게 다시 뜯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판 겨울의 자락까지 떠안은 봄은 어떡하고요. 이맘 때쯤에는 겨우 싸이나 자발 정도였던 잡초들은 벌써 웃자라 농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 뜨거워지는 태양, 예전 같지 않은 기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야 할까요.

K형!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과 함께 웃기는 이야기라며 쓰던 말이 또 다시 떠오릅니다. 사람과 돈과 정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는 바이러스도 함께 넘나들고 있습니다. 열렸던 국경은 코로나19가 다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침묵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심은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스멀스멀 옅으로 다가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흠여져야 산다는 말이 유행하면서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은 물론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 종교적 믿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악한 인류는 이를 극복하겠죠. 하지만 이들의 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도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하라는 지구의 몸부림치는 신호일 수도 있고, 이를 대비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요.

K형! 세상만물은 들숨과 날숨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크게 숨을 내쉬며 하늘과 들녘을 보면 제 향기를 잃기는 했지만 찬란한 봄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날 갈 것입니다. 괜한 걱정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열린마당

단체 릴레이 헌혈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박효경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을까. 아직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인지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진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공포 열어붙어 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등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미 예정돼 있던 단체헌혈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개인 또는 단체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 및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제주는 전체 헌혈 참여자 대비 10

~20대의 참여율이 높는데, 동·하절기 방학기간이 되면 이에 영향을 받아 헌혈 참여자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헌혈 및 단체 헌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아 제주혈액원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올해 1~2월 헌혈자 감소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혈액 보유량이 20% 가량 줄어들었다.

도내 혈액 보유량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혈액원은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개인·기관 및 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방면 헌혈이 가능한 곳은 제주혈액원(720-7800), 신제주센터(758-8101), 한라센터(757-8101) 등 3곳이며 단체 헌혈 문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 사람의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나부터 실천하는 단체(개인) 릴레이 헌혈 캠페인 동참으로 봄처럼 따뜻한 생명 나눔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를 아시나요



양은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정치가 나와 공동체의 이익 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정치적 냉소와 어느 정치인도 나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초래하며, 민의를 왜곡시켜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선거관리비용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비용으로 약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기권과 무관심은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적극적인 투표참여는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다. 우리 손으로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가 나라의 주요정책들을 잘 결정하고 있는지, 내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나라 살림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어느 후보자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15일, 우리에게 주어진 두 장의 투표용지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가치가 담겨 있다.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감골신품종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혀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망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배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